



2층 역사문화실 안내도

2층

## 역사문화실 1

1실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주·전남의 역사는 약 6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친 주먹도끼부터 정교한 돌날까지 다양한 구석기가 발굴되었습니다. 완도 여서도, 여수 안도 등 남해안의 조개무덤 유적에는 사냥과 채집, 장례 등 신석기인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고흥과 여수, 보성에서 비파모양 청동칼이 출토되었습니다. 화순 대곡리유적의 정교한 청동거울과 청동방울 등은 우리나라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합니다. 광주 신창동유적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삼한시대에 걸쳐 형성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복합농경마을입니다. 삼한~삼국시대 광주·전남에서는 옹관 무덤이나 원통형토기 등 독특한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전남 동부의 순천 운평리유적 등에서는 가야와의 교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세기 후반~7세기 대에는 금동관모와 같은 백제의 중앙 문화와 생활양식이 점차 자리 잡았습니다.

## 역사문화실 2

2실에서는 남북국시대 이후 광주·전남의 주요 역사와 관련된 전시품을 소개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구례 화엄사는 교종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장보고는 장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국제해상무역의 주관하고 장흥 보림사와 남원 실상사 등 선종 불교 사원의 성립을 지원했습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무진주를 기반으로 신라에서 독립하여 세력을 키웠습니다. 고려시대의 강진은 왕실과 귀족을 위한 최고급 청자의 생산지였습니다. 순천 수선사와 강진 백련사의 불교결사는 고려 후기 교단의 부패를 비판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진도 용장성은 삼별초의 대몽항쟁 거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광주·전남의 사림은 도학에 대한 탐구와 함께 가사문학과 남종화 등 큰 예술적 성취를 남겼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광주·전남에서는 수많은 의병이 고향땅과 조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전통은 19세기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농치지 말아야 할 우리 문화재

2층



슴베찌르개  
순천 월평·죽산, 구석기시대

장신구(귀장신구, 조개팔찌 등)  
안도 조개대미, 신석기시대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제품  
국보 제143호, 초기철기시대

광주 신창동 출토 토기  
초기철기시대



투구와 갑옷  
고흥 인동고분, 삼국

금동관모  
고흥 인동고분, 삼국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통일신라  
국보 제103호

화엄석경  
구례 화엄사, 통일신라  
보물 제1040호

철조여래좌상  
고려



나한상  
담양 서봉사지  
조선

청동불갑과  
아미타여래삼존상  
순천 매곡동, 조선 1468년  
보물 제1874호

분청사기 상감  
이선제 묘지  
조선 1454년  
보물 제1993호

1층



청자 매병  
고려 12-13세기

백자 용무늬 향아리  
조선 18세기

청동 사자모양 향로  
중국 원(1271-1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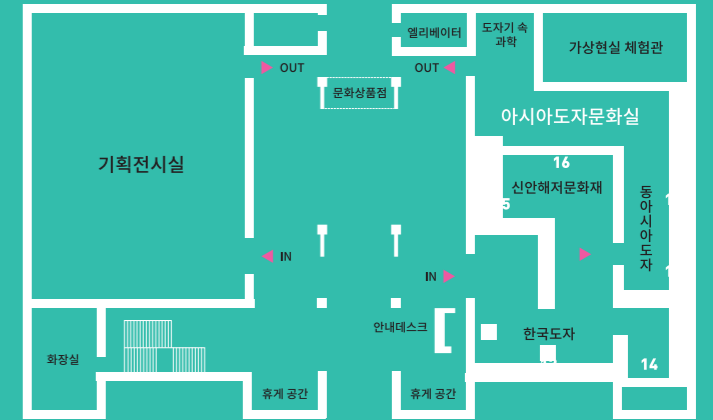


청자 주름무늬 향아리  
중국 원(1271-1368)

백자 청화 향아리  
명(1368-1644)  
경덕진요

백자 청화 주자  
베트남 15세기  
꾸라오짬 침물선 유적 출수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 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회화, 서예, 문서류는 교체 전시합니다



1층

## 아시아도자문화실

한국 도자를 비롯한 아시아 도자 발달의 흐름과 신안해저문화재를 소개한 공간입니다. 1부에서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이어지는 한국 도자의 흐름을 당시 사회 문화와 연계하여 소개합니다. 주제는 '차문화', '문인문화', '의례문화', '길상문화' 등으로 쓰임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된 도자기를 전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신안해저문화재를 보여줍니다. 전시에서는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교역용 도자기, 금속기, 향나무 등을 비롯해 배에서 선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선보입니다. 3부에서는 중국, 베트남, 일본 도자를 소개하여 각 나라별 도자기의 특징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부 '도자기 속 과학' 코너에서는 박물관 뒷산에서 채취한 흙으로 분청사기를 제작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도자기의 제질별 성분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 도자기 속 과학

'우리 동네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된 실험 코너입니다. 주변에서 구한 흙도 부족한 성분을 채워주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과학적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뒷산 흙인 매곡토 100%로 구운 분청사기

매곡토와 분청토를 70:30 비율로 섞어 만든 분청사기

### 국립광주박물관 추천 관람 순서

- 2층 역사문화실부터 전시를 관람하시고
- 1층 아시아도자문화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사, 고대의 다양한 유물에서 고려, 조선시대의 청자와 백자, 아시아의 도자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으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